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홋카이도도 여름철에는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에어컨 없이도 그럭저럭 견딜만한 더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5월 중순부터 약 한 달동안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바람에 올해도 오도리공원 라일락 축제와 삿포로 라멘쇼, 요사코이 소란축제 등의 이벤트들이 현장 개최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물어진 오도리공원에서는 8월에 있을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 경기 개최를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홋카이도에는 장마가 있다? 없다?

홋카이도는 여름에 장마철이 없고 태풍의 영향도 적게 받기 때문에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세력이 홋카이도를 통과할 쯤에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름 장마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월경 초여름이 시작되고 나면, 장마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지속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에조쯔유' (에조장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장마와는 달리 홋카이도 지역의 에조쯔유는 장마전선이 아닌,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한국 장마처럼 폭포수 같은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지는 않지만, 꾸물꾸물한 날씨가 약 2주정도 이어져 일조량 부족이 나타나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향후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실 때, 가급적 이 시기를 피한다면 홋카이도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더욱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일의 황제 '유바리 멜론'

'멜론'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면 자연스럽게 '연두색'이 연상되지만, 홋카이도 멜론은 과육이 진한 주황색인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강한 단맛과 진한 향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마트 과일 코너에선 수박보다도 멜론이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라면 지금 한창 노오란 '참외'를 많이 먹겠지만, 참외는 일본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과일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참외를 씨까지 전부 먹기도 합니다.

홋카이도 멜론의 대표주자격인 '유바리 멜론'은 올해 5월 말에 진행된 첫 경매에서 2개들이 상자가 270만엔 (한화 약 2,7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7~8월경이 되면, 평소에 신세를 진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보내는 관습이 있는데, 유바리 멜론도 제법 고가의 선물세트로 구성되어 진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제철! 성게알

신선하고도 맛있는 해산물로 유명한 홋카이도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성게'가 제철을 맞이합니다. 성게 어획은 이전에 아카렌가 통신에서 소개해드렸던 '리시리'와 '레분' 지역을 포함하여 '샤코탄', '오타루', '하코다테' 등 사실상 홋카이도 각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삿포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샤코탄 반도는 보라성게의 주요 생산지이자, '샤코탄 블루'라 불리는 푸른 바다를 따라 드라이브도 가능하여 여름철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홋카이도에 살면 맛있는 우니(성게알)를 자주 먹을 수 있을것 같아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고급 식재료에 속하는 성게알을 평상시에 먹을 기회는 생각처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SNS 소개 -경상남도편-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한국 온라인 관광'을 주제로, 홋카이도와 연고를 맺은 한국 지역들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매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금년에 홋카이도와 우호제휴 15주년을 맞이한 경상남도의 명소 등에 관한 지역 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우포늪

우포늪은 창녕군 일대에 위치한 한국 최대의 자연습지입니다. 홋카이도에도 구시로 습원, 우토나이호, 굿차로호 등 람사르 조약으로 보존되는 습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우포늪도 마찬가지로 람사르 조약 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포늪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및 희소종들이 서식하며, 겨울에는 철새들도 찾아오기에 자연생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산책과 사이클링, 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에 위치한 동피랑 마을은 개성이 넘치는 벽화들이 그려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을 이름인 '동피랑'은 동쪽의 벼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언덕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원래 재개발 대상 지역이였지만, 벽화가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며 오늘날에는 통영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벽화는 2년마다 새롭게 단장된다고 하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영상테마파크는 190편에 달하는 한국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이 촬영된 대규모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의 거리 풍경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어, 시설 내부를 견학하는 것만으로도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한국 불교의 성지라 불리는 합천에는 '해인사'라는 고찰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대장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13세기에 제작된 이 팔만대장경은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에 실시된 조사를 통해서 총 81,352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굴 요리

홋카이도에서는 앗케시초, 사로마호 일대에서 맛있는 굴이 채취되며, 한국에서는 경상남도의 굴이 가장 유명합니다. 특히, 통영은 한국 최대의 굴 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굴요리집들이 늘어선 통영에서는 갓 잡은 신선한 생굴을 비롯하여 굴 무침, 굴 비빔밥, 굴 부침개 등 한 상 가득 차려진 호화로운 굴 정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충무김밥

'충무김밥' 또한 통영의 명물입니다. 속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한입 크기의 김밥을 매콤한 무와 오징어 무침과 곁들여 먹는 향토음식이며, 어부들의 도시락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재료들이 들어간 김밥은 기온이 높아지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재료와 밥을 따로따로 먹는 독특한 형태의 김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